

新入生 問題 調査 研究

高 明 奎

I 序 言	次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D. 切實한 個人問題
(2) 本 題의 限界	E. 課外活動의 問題
II 研究方法 및 節次	F. 通學의 問題
(1) 調査對象	G. 우리나라 將來 問題
(4) 資料蒐集	H. 副職의 問題
(2) 研究期間	I. 職業問題
(5) 資料處理	J. 大學에 要項事項
(3) 調査道具	IV 結 言
III 結果 및 解釋	(1) 要 約
A. 入學動機의 問題	(2) 提 言
B. 學科의 選擇 問題	(3) 參考文獻
C. 轉科의 問題	

I 序 言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國家豫備考試 및 大學入試등 어려운 고비를 치르고 大學生이 된 新入生들은 우리나라의 選民이요, 엘리트들이다. 新入生들은 그 많은 靑少年中에서도 特別히 가려낸 存在인 만큼, 그 만큼 發展의 可能性이 豊富함을 믿고 있으며, 그들에 거는 社會期待 亦是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發達의 潛在能力 (Potentialities)이 있다 손 치더라도, 急激한 環境의 變動으로 인해서 充分히 그 能力을 發揮할 수 없을 境遇가 드물지 않다. 始作이 半이 란 말도, 環境이 좋을 때에 期待되는 成果도 크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본다.

특히 新入生의 경우, 지나간 달고도 쓴 中·高校 6年이라는 길고도 짧은 歲月동안 지워진 規制 밑에서 딱딱한 規律를 지키며 敎育을 받다가, 大學이라는 比較的 自由스러운 勞團氣와 制度에 갑자기 當面하고, 보다 當황하여 제대로의 調節이 어려울 可能性이 높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新入生들에 관한 問題意識을 調査·分析한 다음, 그 結果를 基礎로 하여 보다 바람직한 大學生活에의 適應을 돕기 위한 指導方案을 摸索해 보려는데 本 調査研究의 第一次 目的이 있고, 1971學年度 新入生과 比較하여 그 反應上의 推移를 알아보는 데에 第二次 目的이 있다.

(2) 本 調 査 的 限 界

本 調 査 的 限 界 點 是 如 下 所 述 的 。

- 1) 本 調 査 中 是 否 對 大 學 教 育 的 理 論 性 定 立 有 關 的 研 究 不 是 現 況 把 握 的 重 點 。
- 2) 本 調 査 的 標 本 (Sampling) 是 以 新 入 生 為 限 的 所 以 結 果 不 能 一 般 化 (generalization) 。
- 3) 預 備 調 査 (pilot study) 沒 有 進 行 本 調 査 (major study) 中 所 以 必 須 強 制 選 擇 的 傾 向 是 有 的 。
- 4) 本 調 査 對 象 中 是 否 有 新 入 生 全 體 (population) 的 問 題 雖 然 有 的 但 是 回 收 率 和 應 答 未 備 的 全 體 的 71.1% 以 內 的 。
- 5) 本 調 査 的 結 果 處 理 中 是 否 有 百 分 率 (%) 統 計 方 法 的 使 用 問 題 和 其 他 各 種 要 因 中 重 要 的 問 題 只 是 處 理 的 。

II 研究方法及節次

(1) 調 査 對 象

本 調 査 的 對 象 是 1975 學 年 度 新 入 生 (410 名) 全 員 中 的 實 際 上 有 資 料 的 全 體 的 71.1% 。

學 部 別 及 全 體 別 回 收 率 是 < 표-A > 所 示 的 。

< 표-A >

질문지 표집의 구성내용

학 부 별	전공(학과)별	신입생 수	피조사자수	%
지 역 개 발 학 부	개발행정전공	21	20	93.5
	경관전공	21	20	
	관광전공	20	18	
	계	62	58	
교 육 학 부	국어전공	20	20	90.5
	영문전공	23	20	
	수리전공	21	21	
	미술전공	20	20	
	체육전공	20	20	
	가정교육과	20	19	
	교육과	20	17	
	계	144	137	
농 학 부	농화학	18	14	69.9
	화물예산	19	15	
	산학	36	22	
	축산	30	21	
	계	103	72	
수 산 학 부	어업	38	30	71.1
	식품	31	20	
	공예	28	13	
	계	97	63	
전 체		406	330	

(2) 研究期間

本 調査研究은 '75學年度 3~5월에 文獻研究와 問項作成·印刷하였고, 6월에 資料蒐集, 7~8월에 資料處理, 9~12월에 結果分析·整理하였다.

(3) 調査道具

新入生 實態의 一般의 傾向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리고 '71學年度 新入生 反應과 比較하기 위하여 '71學年度에 쓰였던 說問紙를 印刷·使用하였다.

說問의 領域과 問項數는 다음과 같다.

- (1) 大學入學에 관한 動機問題 (1問項)
- (2) 學科選擇에 관한 問題 (5問項)
- (3) 轉科에 관한 問題 (2問項)
- (4) 切實한 個人問題 (2問項)
- (5) 課外活動에 관한 問題 (2問項)
- (6) 通學에 관한 問題 (1問項)
- (7) 우리나라의 將來問題 (2問項)
- (8) 副職에 관한 問題 (2問項)
- (9) 將來의 職業問題 (1問項)
- (10) 學校當局에 要望事項 (1問項) 등 10개 領域에 걸친 問題를 中心으로 19개의 問項을 提示했다.

(4) 資料蒐集

8절지 겹지 3面に 프린트 된 說問書를 7日間 (1975年 6月 26日~7月2日) 該當 學科의 講義室에서 集團의으로 無記名의 隨機 配布·回收하는 無作爲 標集(Random Sampling)을 하였다.

(5) 資料處理

百分率(%) 統計方法에 의해 모두 資料가 處理되었고, 分析變數 (Analytical Variables)別 比較에 있어서는 全體·學部別 比較를 하였고, 特別 全體別에 있어서는 '71學年度 新入生 全體의 反應比率과 對比하여 分析處理되었다.

III 結果 및 解釋

A. 大學入學에 관한 動機問題

여기에서는 新入生들이 大學에 入學한 動機는 多樣하리라고 보아, 그 動機에 대한 說問을 包含시켰다.

(1) 大學入學의 動機

新入生들이 本 大學에 入學한 動機는 무엇인가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A-1> 대학입학의 동기

항 목	학 부 별						
	地	教	農	水	전 체	전 체'	
학문연구를 위하여	5.1	12.3	13.8	14.2	11.2	20.1	
지성인으로서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28.0	35.3	31.9	28.5	32.1	15.9	
국가발전에 공헌할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18.1	13.9	5.5	7.9	11.5	22.2	
장래 직업생활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43.0	27.9	22.2	19.0	27.2	30.5	
기 타	5.1	2.4	4.1	3.2	3.6	8.3	
무 응 답	—	7.9	22.2	30.1	14.2	2.7	
N	58	137	72	63	330	144	

※ 地: 지역개발학부, 教: 교육학부, 農: 농학부, 水: 수산학부임. 전체': 1971학년도 전체%임.
N: 사례수, 모든 항목에 속한 숫자는 %임.

<표A-1>에 의해서 나타난 全体的인 反應을 보면 “지성인으로서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서”가 32.1%로 제일 많고, “장래 직업생활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가 27.2%로 다음이고, “국가발전에 공헌할 지도자” “학문연구” 등이 각각 11% 順位이다.

한편 1971학년도 (1)의 新入生들은 “직업생활” (30.5%) 외에 “국가발전” (22.2%) “학문연구” (20.1%) 를 重視하는 傾向이다.

學部別 反應을 보면, 教育學部의 경우 “인격” (35.3%) 을 重視하는 傾向이 他 學部보다 優勢한데, 이는 將來 教師로서 갖추어야 할 것은 사람됨이라고 보는 것으로 바람직한 일로 보아진다. 地域開發學部는 “직업생활” (43.0%)에 越等한 反應을 보이는 것이 特色이다.

B. 學科選擇에 관한 問題

學科選擇에 관한 領域에서는 大學志望順位 (1·2志望), 學科選擇의 基準, 學科選擇時의 助言有無, 學科選擇時의 助言者, 그리고 學科에 대한 滿足度의 問題를 包含시켰다.

(1) 大學志望

學生이 入學當時 本 大學志望은 어떠한가에 대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B-1> 대학지망

항 목	학 부 별						
	地	教	農	水	전 체	전 체'	
제 1 차 지 망	24.0	43.6	45.8	34.9	38.7	42.4	
제 2 차 지 망	74.1	54.0	36.9	65.0	55.7	50.0	
무 응 답	1.7	2.4	18.3	—	5.4	7.6	
N	58	137	72	63	330	144	

(1) 前年度로 統一함.

<표B-1>에 의해 全体別로 보면 2志望으로 入學한 生學이 全体の 55.7%로서, 前年度보다 5.7%나 높다. 이는 本 大學은 後期로서 그 만큼 他道出身의 學生들의 志望率이 加增되고 있음을 暗示해 주고 있다.

學部別로 보면 教育學部 (43.6%), 農學部 (45.8%) 學生들이 他 學部 學生들보다 1志望으로 入學한 傾向이 높은 反面, 地域開發 (74.1%), 水產學部 (65.0%) 學生들은 2志望으로 들어온 傾向이 훨씬 높다.

(2) 學科選擇의 基準

學生들의 學科選擇의 基準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B-2>

학과선택의 기준

항 목	학 부	학 과 선택 의 기 준					
		地	敎	農	水	전 체	전 체'
적성 및 흥미에 알맞기 때문에		30.1	52.5	25.0	25.3	38.1	35.4
가정환경 및 경제상태를 고려해서		3.4	12.3	—	9.5	7.5	9.0
장래의 직업선택을 위해서		36.2	13.9	8.3	23.8	18.1	22.9
고교성적 (실력) 을 고려해서		6.9	7.1	12.5	14.2	9.9	2.1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1.7	4.3	16.6	1.5	6.6	1.4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18.1	4.7	13.8	22.2	13.3	13.2
기 타		1.7	0.7	—	3.2	1.2	—
무 응 다		—	2.9	20.8	3.2	6.6	15.9
N		58	137	72	63	330	144

<표B-2>에 의하여 學科選擇의 基準을 全体的으로 보면, “적성 및 흥미”가 38.1%로 제일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장래의 직업선택”이 18.1%로 다음이고, “미개척 분야”가 13.3%의 順位로 나타났다.

이러한 傾向은 前年度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앞으로 自己適性和 興味를 考慮하지 않고 于先 어떤 學科나 合格해 보자는 式으로 入學한 學生들은 學科 不適應에서 心理的 負擔을 느끼리라 豫想됨과 同時에, 轉科問題도 提起되리라 본다.

學部別로 보면 “적성 및 興味를 고려해서”란 항목에서 教育學部 (52.5%)가 過半數로 제일 많고, “장래의 직업선택”이란 항목에 대한 反應은 地域開發學部 (36.2%), “父母의 권유”는 農學部 (16.6%), “미개척분야”는 水產學部 (22.2%)가 높은 편이다. 이는 學部의 特性에 따라 學科選擇의 基準이 差別함을 알 수 있다.

(3) 學科選擇時의 他人의 助言有無

學生은 學科選擇時에 다른 사람의 助言을 받았느냐에 대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학과선택시 조언유무

<표B-3>

항 목	학 부	地	教	農	水	전 체	전 체'
조언을 받았다		70.6	53.0	52.5	55.4	59.9	36.8
조언을 받지 않았다		29.3	47.0	47.2	44.4	40.9	63.2
N		58	137	72	63	330	144

<표B-3>에 의해 全体的으로 보면 “조언을 받았다”가 6할이나 되고, “받지 않았다”가 4할에 이른다. 한편 前年度에 있어서는 “조언을 받지 않았다”가 6할을 웃돌고 있고, “조언을 받았다”가 4할 밑돌고 있는데, 서로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助言이 學生들의 適性이나 興味, 能力을 考慮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父母, 教師들이 進學이라는 좁은 門에 當到한 學生들을 위해서 그 만큼 神經을 쓰고 있다는 것을 端的으로 말해주고 있다.

學部別로 보면 “조언을 받았다”란 항목에 대한 反應은 開發學部 (70.6%)가 越等히 높은 反面, 他 學部는 비슷한 傾向을 보여준다.

(4) 學科選擇時的 助言者

그러면 學科選擇時에 他人의 助言을 받았다면, 누구의 助言이었느냐에 대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B-4>

학과선택시 조언자

항 목	학 부	地	教	農	水	전 체	전 체'
가족원 (부모·형제)		43.4	43.2	44.1	45.6	44.2	45.3
고교교사		17.7	37.2	21.5	11.4	20.4	20.8
친척		14.6	8.3	7.8	11.4	12.1	5.6
친우		19.5	11.1	18.2	28.8	18.0	16.9
기타		4.8	—	21.5	2.2	3.7	11.3
N		41	81	38	35	195	53

<표B-4>에 의하면 助言을 받은 全体的 59.9%인 195명중 첫째 “가족원” (44.2%), 둘째 “고교교사” (20.4%), 셋째 “친우” (18.0%)의 影響을 많이 받은 樣 似다.

이러한 傾向은 前年度와 別다른 差異가 없다.

學部別로 보면 “가족원”이란 항목에 대한 反應은 各 學部가 4할 以上으로 비슷한 傾向을 나타내는 以外에, “고교교사”에는 教育學部(37.2%)가 훨씬 높고, “친우”에는 水產學部(28.8%)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自己子女의 進路에 家族員이 關心을 갖는다는 일은 必要한 일이라는 하지만, 主觀的, 自己中心的으로 助言, 指導가 이루어 질 可能性이 濃厚한 바, 보다 客觀的인 資料에 의한 指導가 行해지기 위해서 보다 高校教師의 參與가 必要하리라 여긴다.

(5) 現在 所屬한 學科에 대한 滿足度

現在 學生들이 所屬한 學科에 대한 滿足度の 反應은 다음과 같다.

<표B-5>

소속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항 목	학 부	地 教 農 水 전 체						전 체'
		地	教	農	水	전 체		
만족한 편이다		50.0	29.2	33.3	30.1	36.6	38.2	
그저 그렇다		37.0	47.2	33.3	41.5	41.2	48.6	
불만스럽다		12.6	19.2	13.8	25.3	18.1	11.1	
무 응 답		—	2.9	19.4	3.2	3.7	2.1	
N		58	137	72	63	330	144	

<표B-5>에 의하면 學生들은 現在 住屬한 學科에 대하여 “그저 그렇다”가 41.2%으로
 뜸이고, “만족한 편”이 36.6%로 다음이고, “불만스럽다”가 18.1%의 順이다.

여기에서 注目해야 할 일은 無關心·傍觀的인 態度(41.2%)와 불만스럽다는 態度(18.1%)
 를 합한 59.3%의 學生들이 果然 學科適應에서 좋은 成績과 自己能力을 十分 發揮할 수 있
 는지 疑問視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事實은 適性和 興味를 考慮하지 않거나, 他人의 助言에 의해서 入學한 學生이 많
 다는 데서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學部別로 보면 “만족한 편”은 地域開發學部(50.0%)가 훨씬 높은 反應을 나타내고, “無
 關心”의 表明은 教育學部(47.2%)·水產學部(41.5%)가 높다.

C. 轉科에 관한 問題

이 領域에서는 轉科(學) 與否와 또 轉科(學)를 한다면 그 理由등에 대한 問題를 內包시켰
 다.

(1) 轉科(學) 與否

學生들은 與件이 許諾한다면, 轉科(學)를 하려느냐에 대한 反應에서 얻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C-1>

전과(학) 여부

항 목	학 부	地 教 農 水 전 체						전 체'
		地	教	農	水	전 체		
하겠다		12.6	35.0	36.9	33.3	31.0	43.1	
하지 않겠다		60.0	43.0	36.6	52.3	46.6	32.6	
생각한바 없다		—	19.2	6.9	14.1	16.6	24.3	
무 응 답		28.0	2.9	18.5	—	4.8	—	
N		58	137	72	63	330	144	

<표C-1>에서 보면 全体的으로 3할 學生이 轉科(學)를 希望하고 있는데, 前年度에 比

해서 12.1%나 낮은 편이다.

이 轉科하려는 傾向은 <표B-2>에서 適性·興味 以外の 基準에 의해 學科를 選擇한 55.4%와 <표B-5>에서 所屬한 學科의 滿足度에 있어 無關心과 不滿이 6할 가량이나 되는 實情으로 보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實際로 轉科(學)하겠다고 態度를 表明한 數는 적은 편이다.

學部別로 보면 教育學部·農學部·水產學部の 3할 以上の 學生들이 轉科를 希望하는 反面 地域開發學部 6할의 學生은 하지 않겠다는 뚜렷한 反應은 아주 對照적인 것으로, 이는 <표B-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滿足한 學生이 50%나 있어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2) 轉科(學)하려는 理由

그러면, 轉科(學)하려는 理由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反應에서 얻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C-2> 전과(학)하려는 이유

항 목	학 부						전 계	전 계'
	地	教	農	水	전 계	전 계'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아서	14.2	36.9	48.1	42.8	39.5	53.2		
졸업후 실용성이 적기 때문에	—	8.6	7.4	14.2	8.5	12.9		
교수진이 불만이기 때문에	28.6	6.5	3.7	9.4	8.0	3.2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14.2	10.8	11.1	14.2	10.6	14.5		
좁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14.2	28.2	14.5	9.4	19.9	4.9		
객지라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	2.1	3.7	4.7	2.9	8.1		
부모의 권유 때문에	28.6	2.1	11.1	4.7	6.9	3.2		
기 타	—	4.3	—	—	1.9	—		
N	7	46	27	21	101	62		

轉科(學)하겠다고는 30%에 該當되는 101명에 대해서 그 理由에 대한 反應을 나타낸 것이 <표C-2>인데, 이에 의한 全體的인 그 뚜렷한 理由로서는 첫째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아서”(39.5%), 둘째 “좁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19.9%), 셋째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10.6%)라고 들고 있다.

前年度에 있어서는 첫째 “흥미와 적성”(53.2%), 둘째 시설빈약(14.5%), 셋째 “졸업후 실용성”(12.9%)을 그 뚜렷한 理由로 들고 있는데, 年度間에 그 濃度와 力點이 差別함을 알 수 있다. 特異한 點은 前年度에서는 “흥미와 적성”이 強調된데 比하여, 今年度에는 “좁은 지역사회”가 關心되는 傾向이다.

學部別로 보면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아서”란 항목에 대한 反應은 農學部(48.1%), 다음이 水產學部(42.8%)이고, 그 다음이 教育學部(36.9%)의 順이다. <표C-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3개 學部の 學生들은 適性和 興味에 맞지 않아서 轉科하려는 傾向이다.

D 가장 切實한 個人問題

이 問題領域에서는 最近 學生個人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切實한 問題의 樣相과, 이 問題를 누구와 相議하고 싶은가 등의 內容이 包含된다.

(1) 現在 當面하 個人問題

現在 當面하고 있는 가장 切實한 問題 11개 範疇에서 3개를 選擇한 反應에서 얻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D-1>

가장 절실한 개인문제

항 목	학 부	地 教 農 水 전 체					
		地	教	農	水	전 체	전 체
건강 문제		5.3	9.2	5.5	9.5	8.4	7.7
경제 문제		16.9	12.8	10.8	10.0	12.4	19.2
병역 문제		11.0	4.4	6.2	4.1	6.3	8.2
성격 문제		5.3	8.7	11.1	5.8	8.3	8.9
인간관계 문제		9.5	16.5	10.8	14.2	13.8	6.7
가정 문제		8.6	6.8	3.7	5.3	6.1	8.5
장래 직업 문제		16.9	9.2	8.0	13.8	11.1	15.9
학교생활 적응 문제		2.8	7.5	7.4	7.3	6.5	8.9
이성·결혼 문제		1.1	4.8	4.6	4.2	4.4	2.2
여가선용 문제		9.1	9.7	6.3	11.6	9.1	7.5
도덕·종교 문제		3.1	2.9	2.3	2.6	2.6	2.5
기 타		1.1	0.4	—	0.5	0.5	3.7
무 응 답		6.3	6.3	22.2	9.5	14.0	—
N		174	411	216	189	990	402

<표D-1>에서 現在 新入生들이 當面하고 있는 切實한 問題를 보면 첫째 “인간관계 문제”(13.8%), 둘째 “경제문제”(12.4%), 셋째 “장래 직업문제”(11.1%)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反應傾向은 道内外의 各 高等學校에서 入學한 學生들 間에 아직 親熟한 對人關係를 맺지 못하였고, 主로 農業에 依存하는 本道 및 他道の 學生들의 經濟的 부담意識과 新入生으로서 將來의 職業意識에서 나온 當然한 現象이라고 볼 수 있다.

前年度에는 “경제문제”(19.2%)와 “장래 직업문제”(15.9%)의 항목에 대한 反應度가 높았으나, 今年度에는 人間關係面이 보다 擡頭된 點이 特色이다.

學部別로 보면 經濟問題와 人間關係 問題가 共通으로 強調되고 있지만, 학부에 따라 問題意識의 順位와 特異한 問題가 存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地域開發學部는 첫째 “경제 및 장래 직업문제”(16.9%), 둘째 “병역문제”(11.0%)이며, 教育學部는 첫째 “인간관계 문제”(16.5%), 둘째 “경제 문제”(12.8%), 農學部는 첫째 “성격문제”(11.1%), 둘째 “경제 및 인간관계 문제”(10.8%), 水產學部는 첫째 “인간관계 문제”(14.2%), 둘째 “장래 직업

문제”(13.8%), 세계 “여가선용문제”(11.6%) 및 “경제문제”(10.0%) 順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問題들의 內包하고 있는 具體的 內容이 무엇인가를 把握하고 助言·指導해 준다는 일은 보다 安定된 學校生活에의 適應에서 學習效果를 올릴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2) 個人問題를 相議하고 싶은 對象

그러면, 이 切實한 個人問題를 누구와 相議하고 싶은가에 대한 反應에서 얻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D-2> 개인문제를 상의하고 싶은 대상

항 목	학 부	地	教	農	水	전 체	전 체'
부		6.8	11.0	15.2	14.1	11.8	1.4
모		6.8	10.9	6.9	9.5	8.7	3.5
형		5.1	3.6	9.7	15.8	7.5	10.4
누나		3.4	4.3	10.1	3.2	5.4	4.9
친우		28.0	34.3	19.8	26.9	28.4	33.3
학우		10.3	8.4	4.1	4.5	7.2	0.7
지도교수		26.0	15.3	20.8	12.6	17.8	13.2
학교상담실		10.3	7.4	8.3	9.5	9.7	6.9
기타		1.7	2.9	4.1	3.2	2.7	3.5
무응답		1.7	0.9	—	—	0.9	22.9
N		58	137	72	63	330	144

현재 當面한 切實한 問題를 相議하고 싶은 對象을 <표D-2>에서 보면, “친우”(28.4%)가 으뜸이고, 다음이 “지도교수”(17.8%), 그 다음이 “아버지”(11.8%)이다.

“아버지”의 反應이 높은 것이 前年度와 特異하며, 나머지는 大同小異하다.

環境이 相異함에 따라 問題樣相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 家庭에서는 父, 學校에서는 指導教授, 交友生活에서는 親友가 相談의 對象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特히 새로운 大學이란 生活環境에 接한 新入生들에게는 學校生活과 專攻分野에 밝은 指導教授와의 人間的 接觸과 指導야말로 求援의 손길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런 點에서 指導教授는 學生들이 當面하고 있는 切實한 問題가 內包하고 있는 具體的 內容을 把握하고 適切한 指導方案을 마련하여 指導한다는 것은 個人的 緊張과 不滿을 解消시켜 보다 適應된 大學生活을 營爲하게 하는 길이요, 學習能率을 極大化시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學部別로 보면 教育學部(34.3%)가 “친우”를 相談의 役으로 더 追求하는 傾向이 있고, 地域開發學部는 보다 “지도교수”(26.0%)를 追求하는 傾向이 있다.

E. 課外活動에 관한 問題

여기에서는 現在 클럽活動의 參加與否, 앞으로 클럽活動의 參加範圍등을 그 內容으로 包

습시켰다.

(1) 클럽活動 參加與否

現在 클럽活動을 하고 있는냐에 대한 反應에서 얻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E-1> 현재 클럽활동 참가여부

항 목	학 부	地	教	農	水	전 체	전 체'
교내에서 活動한다		48.3	49.3	34.7	28.5	41.8	1.4
교외에서 活動한다		28.0	13.9	18.5	14.1	16.6	29.9
활동하지 않고 있다		24.0	31.3	29.3	57.0	35.1	64.6
부 응 답		—	5.2	18.5	—	6.6	4.2
N		58	137	72	63	330	144

新入生들의 現在 클럽活動 參與度를 <표E-1>에서 全体的으로 보면, “교내에서 活動한다”가 41.8%로 으뜸이고, “활동하지 않다”가 35.1%로 다음이고, “교외에서 活動한다”가 16.6%의 順이다. 따라서 校内外를 합한 全体的 58.4%의 學生이 現在 클럽活動에 參與하고 있는 셈이다. 이 反應傾向은 前年度(31.3%)에 比하여 27%나 더 높다.

入試工夫 등으로 빈틈없이 짜여진 高校生活에서 比較的 自由롭고 餘裕있는 大學生活으로 移行된 新入生들이 課外活動에의 參與도가 漸高되는 實情으로 보아, 이들에 指導教授의 適切한 指導下에 健全한 餘暇善用·課外活動의 機會를 준다는 것은 自身들의 個性發揮·內面的인 成長·潤澤한 大學生活을 꾸며나가는 데 좋은 活力素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學部別로 보면 “교내의 活動”에서는 教育學部(49.3%)와 開發學部(48.3%)가 보다 活潑하고, “교외 活動”에서도 開發學部(28.0%)가 他 學部보다 旺盛한 편이다.

(2) 앞으로 클럽活動의 參與範圍

만일 앞으로 클럽活動을 한다면, 어떤 클럽에서 活動하려느냐에 대한 反應에서 얻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E-2> 앞으로 클럽활동의 참여범위

항 목	학 부	地	教	農	水	전 체	전 체'
학 술 연 구		17.2	17.8	22.2	17.4	18.4	22.2
사 회 봉사		28.0	19.2	29.1	19.0	23.6	12.5
종 교 활동		6.9	8.2	8.3	7.9	7.8	10.4
음악 활동		10.3	9.6	2.5	4.5	7.4	11.1
미술 활동		1.7	6.6	1.4	3.2	3.9	2.1
체육 활동		1.7	11.4	2.5	9.5	7.4	4.9
단순한 취미		13.8	5.2	8.3	12.6	8.7	13.9
취미 활동 (물고기·남자 등)		17.2	19.2	15.2	23.8	19.6	19.4
기 타		3.4	—	1.4	1.5	1.2	3.4
부 응 답		—	—	8.3	—	1.6	—
N		58	137	72	63	330	144

<표E-2>는 아직 活動하지 않은 學生들에게도 앞으로 參與하고 싶은 클럽活動의 範圍를 調査한 것인데, 全體的으로 보면 첫째 “社會奉仕”(23.6%), 둘째 “취미활동”(19.6%), 셋째 “학술연구”(18.4%) 등에 뚜렷한 參與意識을 나타내주고 있다.

前年度와 特異한 點은 今年은 위의 3領域에 顯著한 反應을 보여주고 있는데, 特히 “사회봉사”에서는 前年度에 比하여 培以上の 높은 反應을 보이고, 前年度에는 “학술연구”에 높은 反應을 보여주는데 異彩롭다.

여기에서 指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新入生들이 社會奉仕에 關心과 參與意識을 갖고 있다는 點이다. 最近 大學生들이 功利的이고 現實的이라는 批判과는 달리, 學術研究와 아울러 奉仕活動을 즐겨하는 學生들의 健全한 精神의인 次元을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學部別로 보면 “사회봉사”에서는 農學部(29.1%)와 地域開發學部(28%)가 他 學部보다 10% 以上の 參與意識을 나타내주고, “취미활동”에서는 水產學部(23.8%)가 약간 높은 關心을 보이는 點이 다르다.

F. 通學에 관한 問題

여기에서는 學生이 現在 어디에서 通學하고 있는가의 問題를 包含시켰다.

(1) 通學은 어디에서

現在 어디에서 通學하고 있느냐에 대한 反應에서 얻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F-1> 통학은 어디에서

항 목	학 부						
	地	教	農	水	전 체	전 체'	
자 기 집	46.5	51.8	26.3	39.6	43.2	34.0	
하 숙 집	5.1	7.2	22.2	15.8	11.8	18.1	
자 취	41.3	35.1	33.3	28.5	34.0	37.5	
아르바이트	1.7	0.7	—	—	0.6	0.7	
친 족	3.4	5.2	2.5	3.2	3.9	5.6	
기 타	—	—	—	—	—	1.4	
무 응 답	1.7	—	15.2	12.6	6.6	2.8	
N	58	137	72	63	330	144	

<표F-1>에 의해서 全體的으로 보면 “자기집”(43.2%)이 제일 많고, 다음이 “자취”(34.0%), 그 다음이 “하숙집”(11.8%)의 順이다. “자기집”에서 通學하고 있는 學生은 前年度(34.0%)에 比해서 9.2%가 더 많지만, “하숙집”과 “자취”의 學生을 合한 45.8%는 적지 않은 數이다. 이들이 여러가지 어려움과 또한 不安定한 生活에 빠질 可能性이 있으리라 여길 때, 適切한 教育的 方案이 摸索되어야 한다.

學部別로 보면 教育學部는 “자기집”(51.8%)에서 通學하는 學生이 많은 反面, 地域開發學部는 “자취”(41.3%)의 學生이 많은 편이다.

理由에 대한 반응에서 얻은 結果가 <표G-2>인데, 이에 의해서 全体的으로 보며 “경제적 발전” (69.4%)이 으뜸이고, “사회적 발전” (22.3%)이 다음이다.

前年度(75.5%)에 비해 “경제적 발전”의 比率은 낮지만, “社會的 發展”의 反應은 훨씬 높다. 이는 最近 社會의 不條理 除去運動이 作用된 것으로 풀이 된다.

學部別로 보면 將來에 樂觀的인 希望을 갖고 있는 水產學部(76.6%)·教育學部(71%) 學生들이 “경제적 발전”을 더 들고 있다.

H. 아르바이트 問題

이 領域에서는 아르바이트 希望與否와 그 願하는 理由를 內容으로 構成되었다.

(1) 아르바이트 希望與否

現在 아르바이트를 希望하느냐에 대한 反應에서 얻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H-1> 아르바이트 희망여부

항 목	학 부	地 教 農 水 전 체					
		地	教	農	水	전 체	전 체
희망 한다		56.3	70.0	52.6	63.4	62.6	94.4
희망 안한다		24.0	19.1	25.0	14.2	22.0	5.5
무 응 답		20.3	9.6	22.2	25.3	16.6	—
N		58	137	72	63	330	144

<표H-1>에 의해서 全体的으로 보면 아르바이트를 希望한다는 積極的인 態度를 나타낸 學生數는 62.6%인데, 이 傾向은 前年度(94.4%)에 비해서 31.8%나 낮다.

學部別로 볼 때, 希望하는 學生의 比率은 教育學部 (70%)를 頂點으로 해서, 各 學部가 5~6할에 이르고 있다.

(2) 아르바이트를 願하는 理由

그러면, 이같이 新入生들이 아르바이트를 願하는 理由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에 대한 反應에서 얻은 結果가 다음表다.

<표H-2> 아르바이트 를 원하는이유

항 목	학 부	地 教 農 水 전 체					
		地	教	農	水	전 체	전 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15.1	14.5	7.9	20.0	14.0	22.7
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45.4	31.2	28.8	22.2	39.0	25.0
사회생활의 전문을 넓히기 위하여		3.3	23.0	13.1	4.1	14.4	19.1
여가활용을 위하여		3.3	2.3	21.0	2.5	4.4	1.4
직장생활의 경험을 갖기 위하여		3.3	1.4	5.2	—	1.4	2.9
자립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30.3	26.4	23.6	50.0	38.0	28.6
N		33	96	38	40	207	136

<표H-2>에 의해서 副職을 希望하는 62.6%인 207명의 學生들의 그 理由는 첫째 “잡비마련” (39%), 둘째 “자립정신 배양” (38%), 셋째 “학비 및 사회생활의 건문화대(각14%) 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前年度에 있어서는 反應의 範圍는 같지만, 그 順位는 다르다. 特히 “잡비” 와 “자립정신” 에 대한 反應은 前年度에 비해 前者가14%, 後者가 9.4%나 높다. 新入生들에 多少 經濟的 負擔을 덜고 大學生活을 多樣하게, 또 좋은 社會經驗과 自立精神을 기를 수 있는 多様な 副職 斡旋이 必要하다.

學部別로 보면, 地域開發學部는 “잡비마련” (45.4%)을 위해서, 水産學部는 “自立精神” (50%)을 기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願하는 學生이 越等히 많다.

I. 將來의 職業問題

여기에서는 大學卒業後 어떤 職業을 갖고 싶어하느냐의 說問을 包含시켰다.

(1) 大學卒業後 갖고 싶은 職業

大學卒業後 어떤 職業을 갖고 싶으냐의 19개의 職種에서 얻은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I-1>

졸업후 갖고 싶은 직업

항 목	학 부						
	地	教	農	水	전 체	전 체'	
정치인	3.4	2.4	2.5	—	2.4	0.9	
행정관(공무원)	22.4	4.3	9.7	7.9	10.0	11.4	
법관	5.1	2.9	1.4	1.5	2.4	4.7	
사업가(경영주)	12.6	2.9	6.9	14.1	7.4	6.6	
학자(교수)	3.4	0.7	1.4	—	1.2	2.9	
교사	6.9	35.0	23.6	9.5	22.1	7.6	
의사(의료원)	3.4	36.4	5.5	1.5	17.2	12.4	
기술자	5.1	2.9	—	3.2	2.4	2.9	
계리사	1.7	3.6	5.5	6.3	3.1	2.9	
축산물(농장주)	10.3	—	—	3.2	2.4	1.9	
연론인(기자)	3.4	0.9	19.8	—	5.4	1.9	
농업	3.4	4.3	4.1	1.5	3.6	6.6	
외교관	1.7	0.9	9.7	1.5	3.3	0.9	
실업가(기업인)	3.4	0.9	1.4	1.5	1.6	3.8	
회사원	6.9	2.4	2.5	15.8	6.6	4.7	
항해사(해운업)	1.7	—	1.4	1.5	0.9	2.9	
비서관	1.7	—	1.4	30.1	6.8	21.8	
경찰관(형사)	—	—	—	—	—	1.9	
N	3.4	—	2.5	—	1.2	1.9	
	58	137	72	63	330	105	

<표I-1>에 의해서 가장 憧憬의 對象이 되는 職種은 “學者”(教授)가 22.1%, 다음이 “教師”(17.2%), 그 다음이 “行政官”(公務員)이 10%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前年度에 비해 “學者” 와 “教師” 에 憧憬心을 품는 傾向이 特徵인데, 이는 教育學部の 學

生數가 많은데 基因하지만, 學問的 研究에서 成功해보자는 率直한 心情의 一面이기도 하다.

學部別로 보면 學部의 性格에 따른 職業이 選擇되는 傾向이 如實히 나타나고 있다. 즉, 地域開發學部에서는 “행정관” (22.4%), “사업가” (12.6%), “계리사” (10.3%)의 順이고, 教育學部는 “教師” (36.4%), “學者” (35.0%), 農學部는 “學者” (23.6%), “축산” (19.8%), 水產學部는 “항해사” (30.1%), “실업가” (15.8%), “사업가” (14.1%)등이 憧憬의 順이다.

職種別로서는 地域開發學部가 그 憧憬하는 職種이 多樣하다.

職業選擇에서 注意해야 할 것은 自己가 希求하는 職業을 위해서 準備하는 것은 바람직한 姿勢이긴 하지만, 適性和 興味에 맞지 않은 學科를 擇했을 때 心理的 負擔을 느끼는 것 처럼, 個人의 職業的 適合性에 맞지 않은 職業을 擇하는 것도 또한 그 만큼 負擔을 준다는 點이다. 여기에 職業指導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J. 大學當局에의 要望事項

아직 大學生活을 充分히 經驗해 보지 못한 新入生들로 하여금, 大學當局에의 要望事項을 알아보았는데, 實際 반응한 者 (260명)에서 얻은 결과를 크게 4개 領域으로 分類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學校當局에의 要望事項

1. 勉學雰圍氣 助成 8.7% (29.3%)⁽²⁾
2. 招聘講演 2.3%
3. 校內美化 2.6% (3.9%)
4. 出席카드 없이 自律的 參與 3.4%
5. 校內 諸車禁止 3.4%
6. 女學生 休憩室 0.7%
7. 運動場 整理 1.5% (12.2%)
8. 教授陣 確保 2.3% (7.3%)

(2) 施設 및 附屬機關에의 要望事項

1. 大學캠퍼스 統合 및 施設擴充 18.7% (57.6%)
2. 圖書館 開館時間 延長 1.5%
3. 圖書館 施設擴充 5.7%
4. 藏書確保 13.7% (19.2%)
5. 아르바이트 斡旋 0.7%

(2) ()의 %는 1971학년도 의 것임.

(3) 教授에 대한 要望事項

1. 教授와 學生間의 親熟한 紐帶關係 12.3% (26.9%)
2. 出講時間 嚴守 1.5% (19.5%)
3. 誠意있는 指導 3.4%
4. 充實한 研究와 誠意있는 講義 15.7% (41.5%)

(4) 學生活動에의 要望事項

1. 學生들의 課外活動 獎勵 1.9% (57.1%)

이러한 要望事項中 가장 두드러진 것은 첫째 大學캠퍼스 統合 및 施設擴充 (18.7%), 둘째 充實한 研究와 誠意있는 講義(15.7%), 셋째 藏書確保(13.7%), 넷째 教授와 學生間의 親熟한 紐帶關係(12.3%)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傾向은 前年度에서도 强하게 要望하고 있는 事項들이다.

이미 본 바와같이 新入生들의 要望事項을 4개 領域에서 살펴보았는데, 갓 들어 온 Freshmen들의 要求와 關心의 方向을 알고 그들의 希望과 期待에 副應키 위해서 學校當局은 勿論 全 教職員은 努力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 안다.

IV 結 言

(1) 要 約

本 調査에서 밝혀진 主要 事實들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A. 大學入學의 動機에서 밝혀진 事實

1) 現在 全体 調査者의 32.1%의 學生들은 지성인으로서 人格을 갖추기 위하여, 27.2%는 장래 職業生活의 準備을 위하여, 그리고 나머지 各 11%는 國家發展에 공헌할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學問研究를 위하여 入學하였다.

B. 學科選擇에서 밝혀진 事實

1) 現在 2志望으로 입학한 學生들은 55.7% 이고, 나머지 38.7%는 1志望으로 입학한 學生이다.

2) 現在 38%에 해당하는 學生만이 자기의 興味와 適性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였고, 過半數(55.4%)의 學生은 將來의 職業選擇·未開拓分野·高校成績·家庭環境과 父母의 勸誘에 의해서 학과를 선택하였다.

3) 6할 정도의 學生은 학과선택시에 他人의 助言을 받았고, 나머지 4할은 助言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助言의 경우 家族員(44.2%), 高校教師(20.4%) 親友(18.0%)이다.

4) 現在 6할 가량의 學生은 소속한 학과에 대하여 無關心·不滿을 表示하고 있고, 나머지

36.6%만이 滿足感을 나타내고 있다.

C. 轉科에서 밝혀진 事實

- 1) 현재 轉科(學)를 희망하는 學生은 전체의 31%이다.
- 2) 그리고 學生들의 轉科의 理由로서 첫째 興味와 適性에 맞지 않아서 (39.5%), 둘째 좁은 地域社會이기 때문에 (19.9%), 셋째 施設이 貧弱하기 때문에 (10.9%)를 들고 있다.

D) 切實한 個人問題에서 밝혀진 事實

- 1) 현재 學生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切實한 個人問題로서는 첫째 人間關係 問題(13.8% (둘째 經濟問題 (12.4%), 셋째 將來 職業問題 (11.1%)를 들고 있다.
- 2) 이러한 切實한 個人的 問題를 갖고 相議하고 싶은 對象은 첫째 親友 (28.4%), 둘째 指導敎授 (17.8%), 셋째 父 (11.8%)를 드는 경향이 높다.

E. 課外活動에서 밝혀진 事實

- 1) 현재 58.4%의 學生은 校内外에서 클럽活動을 하고 있고, 나머지 35%만이 活動을 않고 있다.
- 2) 그리고 앞으로 學生들이 參加하려는 클럽活動의 範圍는 첫째 社會奉仕 (23.6%), 둘째 趣味活動 (19.6%), 및 學術研究 (18.4%)에 보다 參與意識을 보여주고 있다.

F. 通學에서 밝혀진 事實

- 1) 현재 전체의 43.2% 學生들만이 自宅에서 通學하고 있고, 나머지 50.3%는 自炊·下宿 副職을 갖고 通學하고 있다.

G. 우리나라 將來에서 밝혀진 事實

- 1) 현재 우리나라의 將來에 대하여 希望의·樂觀의인 態度를 보이는 學生은 전체의 66.3%, 나머지 16.2%만이 絶望의·悲觀의인 見解를 表明하고 있다.
- 2) 그리고 希望의인 見解를 갖는다는 理由는 첫째 經濟的 發展 (69.4%), 둘째 社會的 發展 (22.3%)이다.

H. 아르바이트에서 밝혀진 事實

- 1) 현재 6할 이상의 學生은 아르바이트를 希望하고 있다.
- 2)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希望하는 理由로서는 첫째 雜費를 마련하기 위하여(39%), 둘째 自立精神을 기르기 위하여 (38%), 셋째 社會生活의 見聞을 넓히고 또 學費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14%)서라고 한다.

I. 將來의 職業에서 밝혀진 事實

1) 현재 학생들이 大學卒業後 가장 憧憬하는 職種の 順位를 보면, 첫째 學者(教授) (22.1%), 둘째 教師(17.2%), 셋째 行政官(公務員) (10%)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J. 大學에 要望事項에서 밝혀진 事實

1) 현재 학생들은 大學當局에 대한 要望事項으로서 첫째 大學 캠퍼스 統合 및 施設擴張 (18.7%), 둘째 充實한 研究와 誠意있는 講義(15.7%), 셋째 藏書確保(13.7%), 넷째 教授와 學生間의 親熱한 紐帶關係(12.3%)를 가장 뚜렷하게 指摘하고 있다.

(2) 提 言

여기에서는 各 問題領域에서 發見된 事實을 土臺로 하여, 몇 가지 綜合的인 提言을 하고자 한다.

勿論 이러한 提言은 發見된 事實에 대한 解釋과 같이 必然的으로 本 研究者의 主觀的인 見解가 介在되어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면서, 新入生을 위한 指導方案에 하나의 方向提示를 밝혀둔다.

1) 新入生에게 새로운 大學觀을 注入시킬 수 있는 教育方案이 摸索되어야 한다.

要約<A, 1>에서 나타난 事實을 根據로 해서 보면, 新入生들이 大學에 入學한 動機가 多樣하다.

朴大善⁽³⁾ 大學教育의 機能에 대하여 첫째로 大學은 高等教育機關으로서 各 分野에의 專門職 및 管理職이나 이에 準하는 職業에 나갈 指導的인 人材를 育成하는 教育機能, 둘째로는 大學은 文化의 傳承에 그치지 않고, 그 文化의 諸側面과 內容에 걸쳐서 새로운 境地를 開拓擴張하는 創造的인 研究機能, 셋째로 大學은 一次的으로는 大學이 位置한 地域社會, 나아가서는 國家의 問題解決과 福祉增進에 直接으로 關與하고 奉仕하는 機能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 이 밖에 生活指導의 機能이 添加되는 樣 실다. 이는 教授와의 人間的 接觸에서 幅 넓은 學問과 人格陶冶를 圖謀하는 데 있다.

大學의 機能이 네 機能을 갖고 있는 바, 新入生 指導에 있어서는 이러한 機能이 充分히 注入되고, 또 均衡있게 遂行될 수 있는 指導方案 및 教育計劃이 樹立·實踐된다는 것은 在學時나 卒業後를 莫論하고 指導者·研究者 및 專門家 또는 準專門家로서 育成할 수 있는 길이요, 地域社會 나아가 國家의 發展計劃에 奉仕的인 參與를 할 수 있는 資質을 培養하는 길이 될 것이다.

2) 轉科制度에 대한 合理的인 方案이 繼續 研究되어야 한다.

要約<B, 1.2.4.>와 <C, 1.2.>에서 밝혀진 傾向을 中心으로 해서 볼 때, 獎次 轉科한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

(3) 朴大善編, 大學과 國家發展, 서울, 教育出版社, 1973, pp. 1~15.

鄭範謀는⁽⁴⁾ 「어떤 學科에 興味와 適性이 없는 學生은 自己自身도 効果인 學習能率을 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進學한 學校의 資源도 充分히 活用할 수 없을 것이다. 도리히, 個人的 興味와 適성에 알맞는 適切한 教育指導가 없으므로 因해서 特殊分野의 天才의 人間이 暗藏되고 있는 境遇가 非一非再하다. 이것은 個人的 不幸이며, 크게는 社會의 損害인 것이다」라고 指摘했듯이, 入學해 보자는 式의 學生·父母에 좋은 警種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로 인한 個人的 犧牲을 最大로 막기 위해서는 合理的인 轉科制度에 대한 幅 넓은 方案이 繼續 研究되어야 한다고 본다.

3) 進學指導는 學生과 父母·教師의 三立一體下에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B,3>에서 나타난 事實을 보면 4할의 學生이 學科選擇時 助言을 받지 못했고, 助言을 받은 6할의 學生은 家族員(44.2%)의 助言을 받았다.

他人의 助言을 받지 않고 學科를 選擇하는 傾向은 一見 바람직한 일일는지 모르지만, 一生의 進路에 最終的인 決定을 強要當하는 高校卒業班에서 單獨으로 멋대로 職業이나 學科를 잘못 選擇하게 되면, 一生 돌이킬 수 없거나, 아니면 그 後의 生活에 Handicap한 生活을 營爲할 可能性이 길다. 또한 父母側의 影響이 클때, 父母의 失敗와 弱點을 子女를 通하여 補償(Compensation)하는 傾向⁽⁵⁾이 있어 가끔 子女들의 希望과 適性を 無視·排除함으로써 그들에 커다란 心的 打撃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學生本人과 父母와 教師가 三位一體가 되어 相互 充分한 理解와 協力으로 進路指導에 臨할 때, 바람직한 選擇과 決定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勿論, 進路選擇은 本人自身이 最終 決定되되, 그 過程에서 父母와 教師의 指導助言이 必要한 것이다.

4) 보다 積極的인 指導教授의 活動이 必要하다.

<D,1,2>에서 나타난 事實을 토대로 學生들은 切實한 多樣한 個人問題에 當面하고 있고, 이러한 問題를 指導教授와 相議하고 싶은 學生이 2할 정도다.

學生들이 指導教授를 相談의 役으로 드는 學生이 2割이지만, 嚴格한 規律下의 高校生活에서 比較的 自由롭고 餘裕있는 大學이란 새로운 生活環境으로 移行된 그들에게는 이미 맞보지 못했던 人間關係·經濟問題·職業問題 등 솔한 問題에 直面하게 될 때, 心理的 不安에서 指導教授에의 依存의 傾向은 더 높고 또한 그 學生數도 增加되리라 본다.

이러한 教授와의 個人的인 接觸이 大學에서 學生들의 學問的인 研磨나 人格的인 研磨에 直接的인 影響을 준다⁽⁶⁾는 것을 생각할 때, 教授와 學生間의 對話의 길을 트고 相互間的 理解와 紐帶를 強化하기 위한 方法이 繼續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4) 鄭範謀, 一般適性分類檢査 檢査法要綱(中·高·大·一般用), 서울, 코리안테스팅 센터, 1969, pp. 35~36.

(5) 허-버트·A·캐롤著(李雨杓譯), 精神衛生, 서울, 載東文化社, 1959, p. 133.

(6) 崔正薰 外 1人, 大學生活改善을 위한 基礎 調查研究, 延世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3, pp. 98~101.

5) 클럽의 社會奉仕 精神을 더욱 強化시킬 수 있는 指導方案의 摸索이 必要하다.

<E. 1,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校内外에서 클럽活動을 하는 學生은 58.4%이며, 그 중 23.6%만이 社會奉仕 活動에 높은 參與意識을 나타낼 뿐이다.

大學은 知的인 觀點에서는 文化圈을 超越한 諸學問의 集結體이지만, 그것을 媒介로 한 教授와 學生들이 하나의 共同生活體를 이루는 곳이며, 國家社會의 一部分을 構成하는 社會的인 機構이므로 大學體制는 그것의 基盤인 國家社會와 分離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大學의 機能에서도 본 바와같이 大學은 一次的으로는 大學이 位置한 地域社會 나아가서는 國家의 問題解決과 福利增進에 直接的으로 關與하고 奉仕할 때, 이는 從來의 現實과 遊離된 學問의 象牙塔의인 性格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地域社會開發에 積極 參與하는 大學의 奉仕的 機能을 遂行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러한 小集團속에 科學的인 知性에 기반한 價値와 Ideology가 注入되고 새로운 近代的 態度의 確立만 可能하면 「事情變更의 原則」에 움직이지 않은 信念을 扶養하게 되고, 이러한 信念으로 武裝된 集團이야말로 韓國 近代化推進의 動力이 될 수 있다. (7)

6) 寄宿舍 新設을 積極 勸奨한다.

<F. 1>에서 보면 現在 自宅에서 通學하는 學生(43.2%)을 除外한 50%의 學生들은 自宅外的 學生들이나, 여러가지 어려움과 또한 不安定하고 節制가 없는 生活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할 때, 적어도 寄宿舍만 마련된다면 經濟的으로 貧困한 自炊生을 相當히 吸收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下宿生도 吸收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程度 經濟的으로 도움을 주고 安着시킬 때 그들로 하여금 學業生活에 더욱 邁進할 수 있고, 반면에 그들과 좀더 親近해지고 積極的으로 指導할 수 있는 機會를 더 가질 것으로 期待되는 바, 寄宿舍 施設의 新設을 勸奨하는 바이다.

7) 副職幹族에 대한 對策이 幅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D. 1>와 <H. 1, 2>에서 밝혀진 바와같이, 現在 學生들이 常面한 切實한 問題로서 經濟問題 (12.4%)를 들고 있고, 그리고 6割 以上の 學生들은 첫째 雜費마련, 둘째 自立精神 培養, 셋째 社會生活의 見聞擴大와 學費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希望하고 있다.

經濟的으로 負困한 本道의 學生을 위해서나, 陸地部에서 온 經濟的 負擔을 겪고 있는 學生을 위해서나, 副職幹族의 問題는 다만 學生指導研究所의 任務로서만 認識한 것이 아니라 學校水準의 立場에서 考慮될 때 만이 學生을 도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본다.

家庭教師는 勿論, 各種 調查員, 矯正, 印刷, 時間制 勞動등 學生들의 能力과 體力으로 勤當해낼 수 있는 副職을 마련해 줄 때, 그들은 보다 經濟的 苦痛을 덜고 學業에 熱中케 하고 一面 自立精神을 기르고 社會生活의 見聞을 넓히는 등 大學生活을 多樣하게 하는 手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副職幹族의 機會를 통해서 前에 없이 學生들과 親近해 지는 契機가 된

(7) 高永復·金海東, 人間關係論(II), 韓國放送通信大學, 1972, p. 199.

다는 것을 銘心할 必要가 있다.

8) 보다 個人的 職業的 適合性을 일깨울 必要가 있다.

<I. 1>에 나타난 事實을 바탕으로 現在 學生들이 大學卒業後 憧憬하는 職種은 첫째 學者, 둘째 敎師, 셋째 行政官을 뚜렷이 내걸고 있다.

地位와 收入이 높은 職業은 一見 豪華롭고 羨望의 對象이 될런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學科에도 거기에 알맞는 適性과 興味가 있는 것 처럼, 職業에도 거기에 必要한 職業的 適合性 (vocational fitness) (1) 能力的 要因, (2) 人性的 資質, (3) 身體的 條件, (4) 職業的 興味, (5) 家庭環境的 要因 (8)이 있는 것이다.

職業을 갖기는 가졌지만, 能力과 適性에 맞지 않은 職業을 갖고 있는 탓으로 인해서 能率의 低下는 勿論, 安定된 職業意識을 가질 수 없는데서 衝動的이고 官能的인 刺戟을 追求하는 惡性 消費生活에 흘러버리기 쉽다. 靑少年의 非行도 職業의 不安定性에서 오는 수가 非一非再하다. (9)

따라서 「職業의 選擇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個人的 職業的 適合性에 대한 理解와 職業에 대한 理解는 勿論, 兩者의 合理的이고 調和된 關聯性을 찾아서 그 統合을 이룰 수 있는 相談指導가 必要하다. (10)

9) 大學캠퍼스 統合과 教育活動을 위한 施設擴充이 必要하다.

<J. 1>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學生들은 大學當局에 대한 要望事項으로 첫째 大學캠퍼스 統合과 施設擴張을 들고 있다. 本 大學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캠퍼스가 濟州市와 西歸邑으로 分散되어, 學生은 勿論 大學當局의 立場에서도 敎科課程이나 學事 및 行政上의 運營面에 적지 않은 難關을 겪고 있는 것이 現實情이다.

이러한 實情을 勘案하여 몇 해전부터 新入生 아니 在學生, 나아가 道民의 興望인 大學캠퍼스 統合推進이 活潑히 이루어져서 現在 30萬坪의 敷地를 確保해 놓았고, 豫算이 닿는대로 宿願인 着工의 段階에 있다.

따라서 이 歷史的 課業에 統合推進委員會는 勿論 全 敎職員이 大同團結하여 倍前의 參與意識을 發揮한다는 것은, 곧 大學캠퍼스 統合을 앞당기는 길이요, 新入生의 要求에 報答하는 길이요, 地方大學을 育成하는 길이라고 본다.

(8) 李榮德·鄭天植, 生活指導의 原理와 實際, 서울, 敎學圖書株式會社, 1962, pp. 175~190.

(9) 鄭寅錫, 靑年心理學, 서울, 載東文化社, 1971, p. 239.

(10) 上揭書, p. 241.

(3) 參 考 文 獻

- 1) “學生研究”(第5卷 第2號), 서울 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68.
- 2) “學生指導研究”(第2卷 第1號), 成均館大學校 學生指導研究室, 1975.
- 3) “學生生活研究”(第11卷), 梨花女子大學校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75.
- 4) “學生生活研究”(第5號), 淑明女子大學校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70.
- 5) “學生指導”(第1·2輯), 濟州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1~1972.
- 6) 崔正薰·韓宗哲, 大學生活 改善을 위한 基礎 調查研究, 延世大學 校 學生指導研究所, 1970.
- 7) 鄭範謨, 一般適性分類檢査 檢査法要綱(中·高·大·一般用), 코리안테스팅 센터, 1969.
- 8) 朴大善 編, 大學과 國家發展, 서울: 教育出版社, 1968.
- 9) 李榮德·鄭元植, 生活指導의 原理와 實際, 서울: 教學圖書株式會社, 1962.
- 10) 鄭寅錫, 青年心理學, 서울: 載東文化社, 1971.
- 11) 高永復·金海東, 人間關係論(Ⅱ), 韓國放送通信大學, 1972.
- 12) 李南杓譯, 精神衛生, 서울: 載東文化社, 1959.